

# 다니엘서 - 숫자 70

고대의 석판에서 현대의 책임까지: 언약의 여정을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2-03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언약 관계의 기초이자 상징으로 두 개의 판을 주셨다. 그 두 판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그 두 판의 산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주님께서 현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분은 언약 관계의 기초이자 상징으로 두 개의 판을 주셨다. 그 두 판은 또한 그들에게 네 판 모두의 산 증거를 온 세상에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문자 그대로의 노예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의 실망을 헤쳐 나가게 하신 직후에 주어졌다.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이 속박 가운데 있었던 기간은 예언에서 분명히 사백삼십 년으로 지목되었으며, 그 속박 중에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잊어버려 더 이상 지키지 않았다.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가톨릭의 속박이라는 영적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1844년의 큰 실망을 통과하게 하신 직후에 영적 현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영적 현대 이스라엘이 속박되어 있던 기간은 예언에서 분명히 1,260년으로 지목되었으며, 그 속박 가운데 있는 동안 영적 현대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잊고 지키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어 고대 이스라엘에게 가져가게 하시던 바로 그때, 그의 형제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밝히고, 그분의 질투는 특히 우상숭배에 대하여 드러나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택함받은 자가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둘러싸고 벌거벗은 채 춤추고 있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내신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에게 명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전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두 모았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목전에서 그 표적들을 행했다. 출애굽기 4:28-30.

두 언약의 돌판이 주어졌던 언약 역사 동안 고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지자의 형제는 질투의 형상의 반역의 지도자였다. 두 언약의 돌판이 주어졌던 언약 역사 동안 현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선지자의 남편은 1863년의 반역의 지도자였고, 1863년은 제단의 문 어귀에 질투의 형상이 놓이는 것으로 표현되는 재림주의 첫 세대를 가리킨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어라.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제단의 문 어귀, 곧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 8:5.

"제단"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뒤섞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불이 우리의 노력에 사용되어야 한다. 참된 제단은 그리스도요, 참된 불은 성령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감이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실 때에만 그는 믿을 만한 조언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돌이켜 이방 제단에서 묻는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3권, 300쪽.

"문"은 교회다.

"겸손하고 믿음 있는 영혼에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 곧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더 높은 예배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이다." 증언, 5권, 491.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되었고 더 이상 운동이 아니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교회사 속으로 '들어갔다'. 1863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미합중국 정부와 법적 연합 관계에 들어갔다. 그 해에 그들은 하박국의 두 거룩한 판을 대체하기 위해 위조된 도표도 도입했다. 두 번째 판이 준비되자마자, 예언적 역사라는 관점에서 아론으로 예표된 이들은 모조 형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와 형상 숭배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경고이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신다. 또 거기에서 그분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삼사대에 이르기까지 하신다는 원칙을 제시하신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옮겨 적은 기록이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일과 그에 뒤따른 결과에 대해 그들이 책임이 있었다. 한 민족의 죄와 멸망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우리 시대에도 같은 영향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포도원의 농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요구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범법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배운다. 인간의 전통과 규례와 관습이 높여진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교만과 자기만족은 조장되고, 하나님의 요구는 외면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 놓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 바깥에 두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305쪽.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의 형상이요, 그 안에는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나타났다. 첫 번째 성전 정결에서 그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질투를 언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작은 줄로

엮은 채찍을 만드사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양과 소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들을 엮으시니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기록된 바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켜 버렸다'고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13-17.

성경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모두 '열심'과 '질투'를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둘은 동일한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셨는데, 이는 둘째 계명에서 규정된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며 특히 우상숭배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아론이 한 일과 백성이 하고 있던 일을 알고는 그 두 돌판을 깨뜨렸다. 그 두 돌판은 질투의 참된 형상이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물리적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렸을 때, 그는 바로 둘째 계명에서 규정된 그 질투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모세가 돌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증거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돌판에는 양면, 이쪽과 저쪽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의 글자로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영에 전쟁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며, 내가 듣는 것은 노래하는 소리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자, 그의 분노가 타올라 손에 들고 있던 돌판들을 던져 산 아래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다. 출애굽기 32:15-19.

두 돌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거였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사람들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형상이다. 두 돌판은 질투의 참된 형상이며, 참된 질투의 형상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고 있던 바로 그때 아론은 모조된 질투의 형상을 만들어 냈다. 내면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자들은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나 아론과 함께 축제하던 자들은 벌거벗은 채 춤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라오디게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모세는 백성들이 벌거벗었음을 보았다(이는 아론이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하도록 벌거벗게 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2:25.

위조된 도표가 만들어지기 7년 전인 1856년에, 제임스와 엘렌 화잇은 그 운동이 라오디게아적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했다. 1863년에 재림주의는, 고대 이스라엘이 가짜 '질투의 우상'을 둘러싸고 춤출 때 문자 그대로 '벌거벗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다. 아론이 만든 그 모조물은 금으로 만든 우상이었지만, 송아지의 형상이었으니 곧 짐승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었을 뿐 아니라 짐승을 위한 우상이기도 했다. 금송아지는 짐승의 우상이었지만, 또한 아론이 불의하게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냈다고 선언한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기도 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다듬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너의 신들이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말하였다.  
“내일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자.”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으며, 백성은 앉아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놀았다. 출애굽기 32:4-6.

금송아지는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거짓 신들에게 바쳐졌으므로, 그것은 또한 짐승에게  
드려진 우상(제물)이기도 했다. 그 형상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성소  
예식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제물인 송아지였다.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바쳐졌다.  
모든 예언적 증언이 세상 끝으로 지목하는 신비의 바벨론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은 유엔(열 왕)이며, 용, 무신론, 그리고 이집트를  
상징한다. 그 여인 자체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모방한 가짜이다. 아론이 이집트의  
신들에게 바친 금송아지는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를 예표했다. 그 큰 음녀는  
바벨론(금)이며, 짐승(이집트)을 타고, 가짜 교회(송아지)이다.

동시에 아론은 제단을 쌓았는데, 방금 정의한 대로 그것은 참된 제단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 날을 주께 절기로 선포함으로써, 거짓된 예배 체계를  
도입했다. 아론의 금송아지는 짐승의 '형상'이자 짐승에게 바치는 '형상'이었고, 거짓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으며, 그의 거짓된 예배 체계를 기념하기 위해 하루가 따로  
정해졌다.

미국은 짐승을 위한 형상을 세우고, 그 본을 따르도록 세계를 강요하는 세력이다. 미국은  
그 숭배 체제를 세계에 강요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짐승의 눈앞에서, 곧 그  
'앞에서' 행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12.

불법의 사람, 곧 교황권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의 짐승이다.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곧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법 아래에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강요하기 시작한다. 미국(땅의 짐승) '앞에' 있는 짐승은 교황권(바다의  
짐승)이다. 교황권은 모조 그리스도이며, 아론은 가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금 우상을  
세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단이시기 때문이다. 그 후 아론은 다음 날에 있을  
절기를 선포함으로써 거짓 예배 체제를 제정하였다. 미국 또한 거짓 예배 체제를  
강요하며, 그것은 거짓 예배일과도 연결되어 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논쟁은 참과 거짓의 '질투의 형상'(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사탄의 형상이나) 사이에 있었다. 그 거짓은 거짓 그리스도(제단), 거짓  
경험(라오디게아적), 거짓 예배일("내일은 여호와와의 절일이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금송아지의 반역은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수반될 반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1863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도 상징한다.

1863년, 하박국의 두 도표에 나타난 밀러의 꿈의 보석들을 덮어 감추기 위해 가짜 도표가  
도입되었다. 그 두 도표는 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으로 예표되어 있었다. 1863년에는  
미국 정부와 법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밀러주의 운동이 종식되고, 라오디게아 운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법적으로 등록되었다. 그 관계는 예언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규정되는 아론의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으로 표현되어, 1863년에 밀러주의자들이 교회-국가 관계를 수립한 것을 예표할 뿐 아니라,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시기의 미국도 예표한다.

라오디게아의 모조된 체험을 대표하는 아론의 별거벗은 채 춤추는 어리석은 자들은, 1856년에 밀러주의 운동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과 같다. 아론의 춤추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낸 영적 체험은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질투를 드러내고 있던 모세의 체험과 대조되었다. 예언에서 '춤'은 기만의 상징이며, 아론의 춤추는 어리석은 자들은 또한 두로의 창녀가 자기 노래를 부르는 동안 미국이 느부갓네살의 악단에 맞추어 온 세상을 '춤추게' 만들면서 가져오는 기만을 대표한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의 밀러주의 운동은 법적으로 등록된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전환되었다. 앞선 글들에서 지적했듯이, 1863년에 여리고가 재건되었는데, 여리고는 라오디게아의 부유함을 상징하며 예루살렘 성의 가짜 모조물로 기능한다. 1863년에 도입된 가짜 예언 도표는 아론과 금송아지, 그리고 춤추던 어리석은 자들의 역사가 반복되었음을 나타냈다. 홍해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화이트 자매가 초기 재림운동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적용은 질투의 우상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역사와 완벽히 일치한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1세대는 제단(그리스도) 앞에 있는 문(교회)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제1세대는 이어 '들어가' 가증한 일들이 점차 격화되는 역사 속으로 나아갔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어라.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제단의 문 어귀, 곧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 8:5.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고찰을 계속할 것이다.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아아, 교회 안에 교만이 얼마나 팽배한가, 위선과 기만이 얼마나 심한가, 치장을 사랑함과 경박함과 오락을 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며,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이 속죄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위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깨닫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참된 회개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깊은 심령의 통회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그것들이 도말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현혹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험의 기간이 끝나 가는 때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입술에 오르고 우리의 경우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 그 결정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악인들과 함께 수에 들 것입니까?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배도를 회개하라. 파수꾼들아 깨어나라, 나팔을 분명하게 불라.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경고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나팔 소리같이 네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이사야 58:1). 백성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한다 해도, 그의 말은 죽음의 차가운 귀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다.

교회는 각성하여 행동해야 한다. 교회가 길을 준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결코 임하실 수 없다. 마음을 간절히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한다. 연합하여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옛날처럼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검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화자찬하거나 자기를 높일 이유가 조금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그분은 참된 구도자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다. 선택된 기별, 1권, 125, 126.